

입당 송 | 시편 33(32),5-6 참조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4,8-12

화답 송 | 시편 118(117),1과 8-9,21-23,26과 28-29(◎ 22)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

○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2독서 | 1요한 3,1-2

복음환호송 | 요한 10,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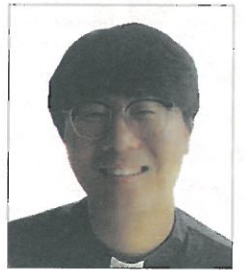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 요한 10,11-18

영성체송 |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최요안 세례자요한신부 | 서울대학교 성소국 차장

부르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신학교에 지원하려는 예비신학생들을 면담하다 보면 성소 동기가 참 다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 복사를 설 때 성체를 들어 올리시던 신부님의 모습이 멋있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만났던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심지어 어릴 적 외국인 신부님이 주셨던 카스테라가 계속 먹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다는 선배 신부님의 일화도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도 각기 다릅니다. 우정의 무대에 나와 “뒤에 계신 분은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라고 외치던 군인처럼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고3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 부르심이 성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예비신 학생 모임에 나왔다고 말하는 조심스러운 청년도 있습니다.

부르심을 너무 확신해서 당돌해 보였던 학생도, 소심하고 용기 없어 보였던 청년도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면 앞으로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에 부족해 보이는 성소 동기를 안고 입학했던 신입생들이 신학교 생활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신학생 양복이 어색해 보였었는데 어느새 수단 입은 모습이 제법 잘 어울리고, 복사 서는 것도 어색해 보였는데 부제품을 받고 제단에서 부제 복사를 섭니다. 그리고 입학한 지 10년 뒤, 이들은 모두 사제 서품식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을 닮은 목자로 태어납니다. 예비신학생

양성과 사제 서품식 준비를 동시에 하는 성소국에서 일하다 보니,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목자께서 정말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성소 주일에 우리는 요한 복음서 10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목자는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정도로 양들을 잘 알고, 길 잃은 양이 생기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양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런 목자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시작하는 성소 동기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개개인의 역량은 조금 부족해도, 그런 목자께서 함께 걸어가시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닮아 착한 목자가 되어갑니다.

제58차 성소 주일을 맞아 우리의 성소를 생각해 봅시다. 각자 부르심 받은 자리는 다르지만 부르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목자께서 정말 좋은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들이 할 일은 목자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목자를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양들끼리도 서로를 격려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사제 성소, 수도 성소, 그리고 평신도 성소로 ‘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의 성소를 위해 기도해 주며 함께 걸어간다면, 착한 목자께서 앞서 걸어가시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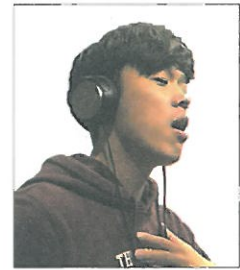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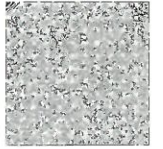
복서울꿈의숲, 서울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요한 10,14)**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행복하게 울려 퍼지는 복서울숲에서 “오오반 친구들!” 하고 부르면, 아이들은 믿고 의지하는 선생님 목소리를 알아듣고 쏠살같이 달려옵니다. 이 아이들처럼 주님 목소리를 알아듣고 주님을 향해 달리는 양이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의 푸른 목장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국성순 마리아 | 가톨릭사진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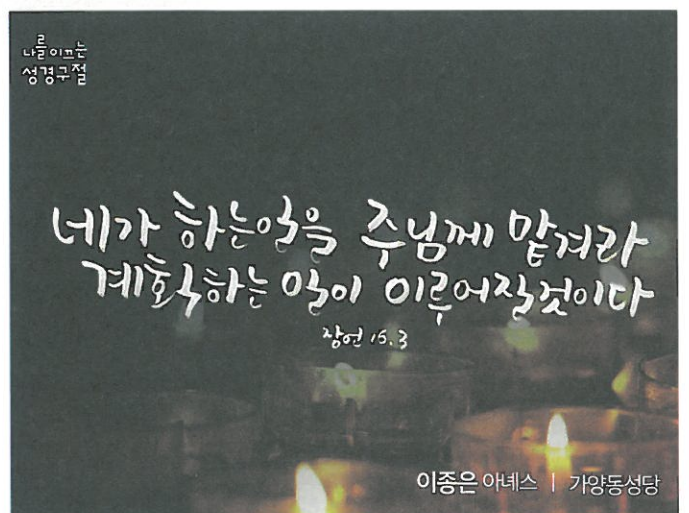
예진호 마르첼리노 | 생활성가 가수

이끌어주는 일

저는 밖에서는 교도관 그리고 집에서는 한 아이의 아버지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너무도 다른 이 두 가지의 역할은 실제로 겪어보면 최소한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끌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교도소에 들어온 수용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나가 잘 적응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는 일,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며 겪게 될 수많은 일에 잘 적응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는 일,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역할에는 이런 큰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점은 잘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내 입장에서 상대를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교도관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던 점들이 수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웠던 일들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었고 내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느끼면 내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게 되기에, 결국 더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인간은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면 그 사람의 말을 좀 더 귀 기울여 듣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저도 모르게 많은 부분을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했으며,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계속 반성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의 내인은 비신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아내의 마음속에도 신앙이 싹트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권해보자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신자인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신앙을 가지고 함께 성당에 다니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비신자인데다 심지어 무신론자인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 작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성당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직간접적으로 아내에게 보여 주며,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언젠간 꼭 저의 꿈인 성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나리' '가족사랑'의 언어는 마음입니다

2020년 감독 리 아이작 정(정이사)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같습니다. 미국이라고 특별하고,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기쁘고 드넓고 풍요로운 곳에서도 누군가는 하루하루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가난과 절망에 눈물을 흘립니다. 삶은 풍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을 안고 찾아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낯설다'를 넘어 '다르다', '이상하다'라는 경계와 차별을 품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낯선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미나리>에서 남자 주인공 제이콥(스티븐 연 분)이 "최고의 진흙"이라고 감탄한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한 가나안도 그랬습니다. 낯설고 다르고 이상한 것은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주목한 <미나리>는 40년 전, 미국 땅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내, 어린 두 아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아칸소의 외딴곳으로 이사 온 제이콥의 꿈은 농장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작은 농장에 처음 심은 한국 채소와 가뭄과 태풍과 장마로 마르고, 쓰러지고, 썩듯이 좀처럼 싹트지 못합니다.

아내의 말대로 가망 없는 시작은 포기하고 도시에서 병아리 감별사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되는 실패와 시련, 아내 모니카(한예리 분)의 불만, 심장병이 있는 아들 데이비드(엘런 킴 분)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팁니다.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것,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 희망을 지켜준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한국에서 온 외할머니(윤여정 분)가 그 씨앗을 가져오지요. 손자 데이비드에게는 쿠키도 못 만들고, 욕도 하고 냄새나는, 아무리 봐도 할머니 같지 않은 가장 한국적인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 그것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족을 따뜻하면서도 애달프고, 간절하면서도 감동적으로 연결합니다.



영화는 그쯤에서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내일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이제 그들은 할머니가 "원더풀"이라고 외친 '어디서든 잘 자라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건강하게 해주는, 찌개와 국에도 넣어 먹고 약도 되는' 미나리니까요. 이름이 말해주듯 어디에 살든 하느님의 자식들이니까요.

<미나리>는 한국인들에게는 머나먼 이국땅에서 살아가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먼 개척시대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역사를 만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차별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미국 사회에 대한 가장 인간적인 충고와 성찰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과거이며 현재이고, 한국 영화면서 미국 영화인 이유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만들었으니 규정으로는 미국 영화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 영화인데 한국어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 무슨 애깃거리인가요. 가족과 이웃 사랑의 언어는 마음이고, 그 언어가 세상 어디에서든 같은데 말입니다.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오늘(4월 25일)은 '부활 제4주일'로 '성소 주일'입니다. 성소계발과 육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성소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성소 주일 행사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따라오너라."(마태 4,19)를 주제로 4월 25일(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유튜브 서울대교구 성소국 채널에서 성소 주일 행사가 있습니다(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행사 내용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모든 신자
 질문참여: 성소국 홈페이지(www.sungso.or.kr) 및 카카오톡 채널 참조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박선환 신부	교포사목	면직

'백신 나눔 운동' 참여 방법

참여방법 1 본당 사무실에 성금 접수(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참여방법 2 계좌입금: 우리은행 1005-398-100101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문의: 02)774-3488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66년 5월2일 김재용 요셉 신부(29세)
- 1986년 4월29일 봉희만 안토니오 신부(70세)
- 1993년 4월27일 김정수 레오 신부(60세)
- 2017년 4월27일 홍문택 베르나르도 신부(64세)

성소를 위한 기도

- 줄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교구청얼림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온라인 독서모임 달달책방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31
 때: 5월3일 시작(4주간 온라인 진행)

2021 노인주일 제정 기념 신앙 수기 공모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올해 제정하신 세계 조부모와 노인주일을 기념하여 신앙 수기를 공모하려 합니다
 공모기간: 6월6일(일)까지 / 시상내용: 사랑상, 믿음상, 희망상(총48명, 총상금 2천3백2십만원)
 문의: 02)727-2385~6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isenior.or.kr) 참조

공모 자격 및 부분	서울대교구에 교적을 둔 신자 중
공모 주제	① 손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한 경험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 ②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았거나, '신앙의 전수자'로서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원)생 및 성인 신자(교리를 받고 있는 예비신자, 수도자, 사제 포함)
공모 요령	손자녀들과 함께 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이야기(조부모 수기) /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통해 성장한 나의 신앙 이야기(손자녀 수기/그림)
공모 요령	수기: 원고 분량 A4 4매 이내(손글씨로도 응모 가능) 그림: 어린이(2009년생부터 가능) 8절 도화지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오명옥 오방쌤지 회전전: 1, 2전시실
 전시일정: 4월28일(수)~5월3일(월)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5월10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송성규 베드로, 김면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1-2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 성사를 받은 교우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교육기간: 6월2일~10월20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신청기한: 5월28일(금)까지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명동대성당 예비신자 모집 안내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 / 문의: 02)774-1784
 추후 대면 수업으로 전환 예정(6개월 과정)
 때, 곳: 5월2일 오전 10시부터, 교육관 303호
 현장 접수(각 반 50명 가감)
 준비물: 반명함판 사진 1매 / 등록비: 1만원

5월	평일반	매주(금) 오후 7시30분
	주일반	매주(일) 오전 10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267차 미사(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4월2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함흥교구 계림, 회령, 나진용기 본당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5월6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정성훈 신부(칠레 선교)
 문의: 02)727-2407, 2409

참성기도 소개강의
 대상: 누구나 / 지도: 이승구 신부
 때: 5월7일부터 매주(금)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B203호(구. 계성여고)
 회비: 2만원 / 문의: 010-4565-8898

'임 가신 길, 임 따라 걷는 길' 순례 신청 안내
 때: 5월4일(화) · 5월15일(토) · 5월18일(화) 화요일 오후 1시부터 ·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코스: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우포도청 터~절두산순교성지) 도보순례
 회비: 1인 7천원(간단한 간식 제공)
 신청: 4월26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방역지침 준수,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2269-0413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매월 셋째주(토)	영등포구 신길6동 여의대방로 65	0507-1306-1505
성골롬반외방선교회	5월2일(일) 9시30분~13시	본부(돈암동,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성모 승천 수도회	수시	본원(광주광역시)	010-3771-5098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본원·온라인	010-4241-1210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수시	수녀원(경기도 양주)	010-6625-0927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수녀원(성북구 장위동)	02)941-4139, 010-8563-6875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pnunkorea@catholic.or.kr)
한국외방선교회	5월2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모임

토아올림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4월1일~30일 / 문의: 010-5482-3217

하느님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팔로티회)

때: 4월27일(화) 13시30분(강의)~14시50분(미사)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6층 / 문의: 031)707-4450

젊은이 몸신학 피정

때: 5월21일(금)~23일(일) 2박3일 / 회비: 8만원
곳: 라베르나 기도의 집(명창) / 대상: 40세 이하 청년
문의: 010-5313-0241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성독)

때: 6월9일·16일·23일·30일(수) 14시~17시(4회) / 회비: 10만원
곳: 씨든영성센터(서울) / 지도: 허성준 신부(의)
문의(접수): 010-4731-2468 최안나(예관성베네딕도회)

제주교구 성지순례 3박4일(글라셋선교수도회)

때: 매일 출발 / 회비: 32만원
내용: 성지 6곳 순례 및 미사·성사(글라셋선교수도회 신부 동반) / 문의: 010-5150-2625

성서모임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곳: 매일 넷째주(일) 5월23일 15시,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카카오톡 '성서모임 열린미사' 검색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문의: 010-3340-0201 도미니코 피정의집(형성)

효소단식	5월13일(목)~16일(일)
성경완독	5월21일(금)~29일(토)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9차	5월7일(금)~15일(토)	문의: 061)373-3001,
제90차	6월11일(금)~19일(토)	010-3540-9001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울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지순례 피정	5월8일~11일, 5월16일~19일
자연순례 피정	5월1일~3일, 5월22일~24일, 5월28일~30일, 6월19일~21일, 7월23일~25일

가정선교회 5월 행사

문의: 010-6281-8626, 02)777-1773 대표

성가영성 일일피정	5월5일 9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윤원진 신부, 이현주 회장
첫토성모 신심미사	5월1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부부나들이 피정	5월22일 14시~23일 17시, 아론의집 본관 한철호 신부, 홍성남 신부 외 4명 회비: 20만원 / 계좌: 신한 131-020-141399 (계)천주교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장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바라지 신입생 모집

대상: 학교 밖(학업중단·위기) 청소년(13세~24세)
교육과정: 점검고시교육, 대안교육(인문·목공·제과·제빵·바리스타·뷰티·3D프린팅·도예 등), 문화활동, 진로탐색 및 상담, 동아리활동 / 문의: 02)2691-6543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ragee2016
곳: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주최, 양천구 신원3동)

효과적인 부모역할

때: 1차 5월12일 2차 5월26일·3차 6월9일·4차 6월23일·5차 9월8일·6차 9월29일·7차 10월6일·8차 10월20일 / 각 차수 별 19시~20시30분
곳: 살레시오회관구관 교육관(신길동) 7층
회비: 회차당 1만원(선착순 50명 접수)
문의(접수): 02)828-3530, 02)828-3549(www.dbym.net)
주관: 돈보스코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여름학기 모집

대상: 연령 무관 / 초급부터 최고급과정까지
접수: 5월3일(월)~29일(토) / http://www.casm.site
때, 곳: 3개월 수업(6월~8월),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 문의: 02)393-2213~5

여름 학기	실기전문 과정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반	그레고리오성가(남·여)·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221학년도 하반기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신입생 모집 5월(예정)

모임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재속 맨발 가르멜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결진성사 받은 분
첫모임: 6월14일 / 문의: 010-3217-8235

서울성모병원 어린이학교 수업 자원봉사자 모집

라파엘어린이학교에서 초·중·고 대상 화상으로 1:1 수업 자원봉사하실 대학생(대학원생 이상도 가능) 선생님 을 모집합니다 / 문의: 02)2258-5312(vally99@hanmail.net)
6개월 이상 가능하신 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과목: 국어·영어·수학 / 학생당 주 1회 40~50분 진행

미사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5월1일(토)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곳: 가톨릭회관 3층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첫토요일 성모신심미사
모든 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자만 참석 가능
때, 곳: 5월1일(토) 11시, 예수성심의 어머니성당(강화)
4월28일(수)까지 예약 필수 / 문의: 010-4550-6955

평양교구 신우회 월레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4월28일(수)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인사

카타리나 피정집 / 문의: 010-9715-1203
곳: 성도미니코 선교 수녀회(형성) / 개인, 자체취사

제주도 관광

제주순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관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포메스영성상담소

영성, 그 길을 만나면 쉽고 회복이 있습니다
대면상담·전화상담 모두 가능(주1회)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화곡성모공동생활가정 여성 장애인 입주자 모집

여성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화곡성모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할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02)2605-6521 이미경 사회재활교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온라인 복음화학교 '치우치우TV' 구독 안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치우치우TV를 검색한 후 '구독'을 누르면 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치유와 위로의 영상 강의가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갑니다
문의: 02)753-8765 새천년복음화학교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생활 속의 심리학	몸·트라우마·정서에 대한 이해- 5월6일~6월17일 매주(목) 13시~15시(7주)
소통과 관계훈련	5월15일~6월26일 매주(토) 10시~13시(7주)
사목상담	대상: 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무료 10회기)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영어성경	루카 복음 / 문 요안나 수녀(메리놀 수녀회) 5월7일~7월23일 매주(금) 11시~13시

직원모집

요셉의원 직원 모집(약사·재무회계)

노숙자, 행려자 등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의원으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함께 일할 직원을 구함
서류·자격: 요셉의원 홈페이지(http://josephclinic.org)
공시 참조 / 서류 접수·문의: info@josephclinic.org

화곡2동성당 사무장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5년 이상된 교우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및 PC 가능하신 분 / 문의: 02)2065-3821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4월30일(금)까지 방문·우편(우 07782,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32길19 화곡2동성당) 접수



성모 성월에 읽기 좋은 신앙 서적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청하세요



성모 성월 추천 도서

마리아의 비밀

예수라는 아들을 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다

산티아고 마르틴 지음 | 18,000원

성모님이 당신 삶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회고록이 발견된다면, 과연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까요? 스페인에서만 10만 부 이상이 팔린 문학 작품 《마리아의 비밀》에서 예수라는 아들을 둔 여인 마리아의 생애와 그 안에 담긴 온유한 사랑을 느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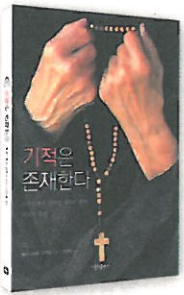
성모 성월 추천 도서

파티마

성모 발현의 목격자,
루치아 수녀의 회고록

루치아 도스 산토스 지음 | 16,000원

제1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봄, 포르투갈의 작은 언덕에서 양 떼를 돌보던 세 목동 아이들은 태양처럼 밝은 빛을 발하는 성모님을 보게 됩니다. 매월 13일, 여섯 차례에 걸쳐 세 아이들에게 찾아오신 성모님의 은총을 지금 만나 보세요.



기적은 존재한다

루르드에서 일어난
기적에 관한 최초의 증언

베르나데트 모리오 지음 | 13,800원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루르드에서의 70번째 기적. 반평생 넘게 불치병으로 고통 받던 저자 수녀는 루르드 성모님 발현 150주년을 기념해 떠난 성지순례에서 굳어졌던 몸이 치유되는 기적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경험한 이의 생생한 증언을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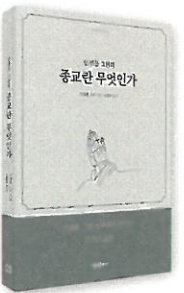


기적

신앙인을 위한
하느님의 영적 표징, '기적'

파트리크 스발키에로 지음 | 20,000원

기적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날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책은 현대 과학으로 불가사의함을 인정받은 가톨릭교회의 여러 기적을 다룹니다.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만나 보세요.



안셀름 그윈의 종교란 무엇인가

“신앙은 자기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안셀름 그윈 지음 | 16,000원

여러분은 종교를,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셀름 그윈 신부는 이 책에서 신앙과 관련된 75개의 질문에 자신의 방식으로 짧고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들었던 질문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그 답을 발견하고, 신앙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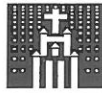
침묵의 대화

관상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토마스 키팅 지음 | 14,000원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책은 하느님을 찾는 영적 여정을 떠난 이들을 위한 지도입니다. 신앙이 무미건조해졌다고 느낀다면 이 책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영적인 도약을 시작해 보세요.

제2179호(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연회 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김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성체신심미사	매월 첫째 금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성모 신심 미사 : 5월 1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5월 2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초등부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봉사시간 : 매주 토요일 12시

문의 : 010-9224-3330

◎ 주일학교 등록제

대상 :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반디2지구(장애아부)

등록비 : 10,000원

문의 : 초등부 교감 (010-9224-3330)

중고등부 교감 (010-7148-1577)

반디 교감 (010-5091-1509)

◎ 2021년도 어린이 첫영성체 교리반

대상 :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

교리시작 : 4월 17일(토) 어린이 미사 후 / 304호

접수방법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문의 : 대표봉사자 (010-9935-6091)

◎ 평일미사 반주자 모집

봉사시간 : 수요일, 금요일 06시 미사

문의 : 최윤희 아녜스 (010-4538-5665)

◎ 사무실 휴무 안내

5월 5일(수), 5월 19일(수)

※ 미사 지향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1. 4. 18.)

총세대	책정 세대	미책정 세대	2020년 책정율	2020년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196	725	1,470	45.3%	42.9%	33.0%	31.0%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오늘은 성소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리모델링 기금 (4월 12일~18일)

누 계 894,878,761 원

◎ 감사헌금 (4월 12일~18일)

김재균 오만원	익 명 오십만원
조치연 삼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이명숙 이십만원	이창임 이만사천원
익 명 일십만원	최일곤 일십만원
김현수 오만원	김준수 오만원
함영동 일만원	박명순 사만원
김관태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부활 제3주일)

교무금 7,845,000 원

주일헌금 4,341,620 원

리모델링 2차 헌금 1,663,000 원